

광주지부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던 지부 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6월21일 광주지부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차기 회장으로 손정문(병283기)회원을 추대하고 차기 이사장으로 유종호(사후75기)회원을 추대했으며, 7월12일 임시총회에서 인준했다.//

부산지부



부산지부(지부장 김종운)는 4월 11일 교육사령관 초청으로 지부회장단 8명이 교육을 방문 하여 방문기념패 전달과 생수 5000병을 기증하였고, 교육사령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그리고 5월13일에는 공군공중기동정찰

사령관 초청으로 지부회장단 10명이 부대를 방문하여 생수 6000병과 교양도서 40권을 기증하고 사령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5월14일에는 공중기동정찰사령관 초청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운동을 함께하고 노래방기기 3대(450만원 상당)와 축구공 20개(15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6월6일에는 지부회장단 10명이 UN묘지를 참배하여 국적을 초월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으며, 특히 이날 일본에 거주 중인 6.25출격조종사인 김덕태 예)대령이 행사에 동참하며 부산지부에 금일봉을 주어 격려해 주었다.//

양평지회



양평지회(지회장 김수영)는 6월15일 양평읍 음식점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지회 회원 및 용문산 공군

부대장과 주임원사 그리고 여주지회 창립을 준비중 송승권, 임경엽씨가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김수영 지회장, 용문산 대대장, 주임원사, 여주창립준비위 송승권, 임경엽 인사말, 참석회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상호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했다.
 김수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6월에도 회원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무척 더운 여름이 된다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김구식)는 5월 12일 시내 음식점에서 지회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원주지구 현충탑앞에서 열린 합동 참배행사에 지회장의 13명의 임원진이 참가해 호국영령들에 대해 넋을 기렸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지회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를 가졌다. 김 지회장은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지회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으며, 회원 모두가 회원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제39차 정기총회를 6월3일 대구공군부대 이근석 기념관에서 지부 회원 약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이날 장학금 수여도 함께했다.

그리고 7월4일에는 지부회원 약 50여명이 대구기지에서 열린 고 이근석장군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는 5월4일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을 모시고 지부 임원진과 함께 육군 보병 1사단이 파주시 통일공원에서 개최한 제73주년 육탄 10용사 호국정신 기념회에 참석했다.
 육탄 10용사는 1945년 5월 개성 송악산 일대에서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고지를 탈환하다가 장렬히 산화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6월9일 지회원 및 지회 산하단체인 보라매봉사단 회원 등 약 40여명이 청와대 관람을 실시하고 참석자들간 친목을 도모했다. 그리고 수원지회는 7,8월중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달임행사’를 3회 실시할 계획이다.//

서산지회



강 회장은 국가대표 탁구선수로 활약 아

서산지회(지회장 홍만진) 강문수(병 201기) 회원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서산시 대안읍, 지역면을 지역구로서 산시 기초의원예 당선 됐다.

시아탁구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올림픽에서 금메달2개 은메달1개로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한 바 있고, 전역후 서울은행 명동지점장 등으로 금융 일선에도 기여한 바 있다. 퇴직후에는 서산시 지역면에 활란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하여 노인복지발전에 기여를 하고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청주지회



청주지회(지회장 이군신)는 5월 31일 지회원 약 30명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와 안보공원 및 DMZ 박물관을 견학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으며, 6월2일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회 회장단 8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옛 전우들을 찾아 헌화 및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가슴속 열정의 화산에 불을 지피라

이영하 (예 중장, 공사 22기, 이치저널포럼 회장)



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를 올려다봐야 한다.

열정은 성공의 원동력이다.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칫 바스러지기 쉬운 원래의 꿈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간직해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열정에서 온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무모하리만치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대단치도 않은 난관 앞에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열정이라 몇몇 사람에게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인 것일까? 아니면 누구나 가슴속에 갖고 있지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폭발하는 화산과도 같은 것일까?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분명 열정의 화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 가슴 저 밑바닥에서 미동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언젠가 계기가 주어지면 세상과 자신을 뒤바꾸는 위력의 열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야말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매력적인 동인이다. 게임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을 볼 때 하면 할

수록 재미있는데 안 빠져들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고 싶은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일과 즐거움이 일체인 삶, 아마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일과 즐거움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움이 있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만족이 점점 중시되고 최근에는 평생 고객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추세에 비춰볼 때, 먼저 나부터 내일을 미치도록 좋아해야 하고, 좋아하는 내 일이 진정 내가 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무슨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겠다. 그래야만 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상급의 전문인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를 올려다 봐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열정에 불타는 시절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단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열정을 갖는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꾸준히 열정에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우주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계

탐사나 군사적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는 올드스페이스 시대에서 민간군이 함께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목표도 우주력에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시대가 바로 제5차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사)공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하는 '우주 경쟁시대의 생존전략' 안보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공군참모총장의 기조연설과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 이성복 공군전투발전단장 오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핵심내용은 우주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간군이 협업하여 우주감시, 우주작전지원으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우주력이 전쟁승패를 좌우한다는 면에서 본격적인 우주전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19년말부터 육해공군해병대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우주군을 탄생시켰다. 이는 우주우세가 전쟁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전장공간이 그동안의 땅 바다 하늘에서 우주와 사이버로 확대되었고 이를 동시적으로 통합하고 신속정확하게 지휘통제하려면 우주력 중심의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우주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우주작전 역량을 갖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행히 공군은 우주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에 전군 최초로 우주력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면서 우주작전교리를 발전시켜왔다. 2015년부터는 우주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우주군과도 우주정보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 시에는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한 한미우주통합팀을 운영하면서 한미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올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에도 한미정상이 이곳 항공우주작전상황실을 방문한 것은 우주력

의 중요성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군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군우주력 발전계획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을 수립하여 전력강화와 조직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력의 중요성은 군사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절대적이다. 이미 세계 최강 기업들은 모두 우주산업으로 뛰어 들고 있다. 우주탐사 위성사업 우주관광 우주실험실 우주태양광 발전소등 우주산업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전세계 항공우주산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838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이중 위성산업 매출액이 3479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수년전의 통계이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위성은 점점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정찰감시 위성, 기상위성, 통신위성, GPS위성등 현재 6000여개의 위성이 지구를 돌며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위성의 도움없이 단 하루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스마트폰 방송 기상정보 네비게이션 자율주행 차등등 모든 생활이 위성과 연결되어 있다.

우주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주영역 거버넌스가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기부장관이 국가우주 전반을 관장해 왔지만 이제는 국방부 산업부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불가피해 졌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치를 발표했지만 그 이상의 국가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안보학술대회에서 국방연구원 오혜 선임연구원은 우주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과 우주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와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몇가지 유의할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군이나 과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주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 올드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력이 폐쇄적이었다면 뉴스페이스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군 협력이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관 주도의 우주력이 아니라 산업체가 더욱 폭 넓게 참여하는 우주시대. 민간군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강력한 국가우주력 협업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우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군사동맹이나 경제동맹보다 더 중요하게 우주동맹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력은 한 나라의 힘만으로 강화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한국 호주 일본 EU등의 우주동맹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한 우주동맹이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우주력 강화와 함께 우주동맹의 핵심국가로 참여하여 국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은 우주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며 결코 과장되거나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정보화사회를 거쳐 제4차산업혁명이 찾아와서 모든 문명을 바꾸었듯이 이제부터는 뉴스페이스시대가 신문명이 될 것이다. 범국가적으로 우주군사력과 우주산업을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같이 갑시다(Gatchi Gabsida)'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주)토브넷회장)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이 2022년5월20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장병, 우리 한·미가 공동으로 같이 나란히 싸워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었다"며 한·미 동맹의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했다. '같이 갑시다'는 6·25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이 맥아더 원수에게 한 말이였다.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원수의 친철했던 6·25 한국전쟁 당시를 되새겨 보며 발전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기술, 경제, 가치, 제도의 동맹으로 가는 길을 공고히 하여야 하겠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6·25전쟁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한국군 부대로는 유일하게 미군에 배속된 육군1사단은 백선엽 장군(1920~2020)이 사단장이였다. 1950년8월 21일 한국군1사단 앞엔 북한군5개 보병사단이 대치하고 있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배수진을 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가 유명한 '다부동 전투'다. 백선엽 장군은 "그날 아침 한국군이 반격하기로 돼 있었는데 북한군이 먼저 공격을 가해 왔다. 미8군 사령부에서 항의 전화가 걸

려왔다. '도대체 한국군은 싸울 의지가 있느냐?'는 질책을 하고 있었다. 백장군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지프를 몰고 전방으로 나갔다. 확인해 보니 그게 사실이였다. 병사들은 축 처진 모습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은 "내 말 잘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후퇴할 곳이 없다. 물러서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우리와 같이하는 미군들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먼저 후퇴하다니, 이게 말이냐 되느냐.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적을 무서워해 후퇴하거든 나를 쏘아라."며 '필사의 사수전'으로 한국 전쟁사에 길이 남는 '다부동 전투'에서의 승리로 반격이 시작 되었다. 그 기세를 업고 백선엽 장군이 이끈 한국군 제1사단이10월19일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지금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근처에 한국 전쟁 중인 1951년4월1일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조선인민군3사단을 격멸한 전승기념으로 '백선엽 호국구민비'가 설립되어있다. 그 당시 다부동이 함락되었으면 대구가 북한군 지상화포의 사정권에 들어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부동 전투는 대한민국 전승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일본 도쿄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유엔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년) 원수가 한국 전선을 시찰에 나섰다. 맥아더 원수는 백선엽 장군을 찾았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맥아

더 원수에게 한 말이 '같이 갑시다(Gatchi Gabsida)'였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돈 스티버스(미국 화가)가 스케치해 그린 그림이 현재 미국 시카고 '프리트처 군사 박물관(Pritzker Military Library)'에 보관돼 있다. 2013년8월29일 주한 미 육군은 백선엽 장군을 미8군 명예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미 육군은 백선엽장군이 한국전쟁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인정하여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한국군 장군으로 추앙 받고 있다. 백선엽장군은 1953년 5월에 미국에 건너가 한미동맹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득해 성공시킨 것은 '신(神)의 한 수'였다. 지금도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그를 '맥아더 같은 신화이자 전설'이라며 존경하고 있다.

백선엽 장군은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다부동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약관33살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백선엽장군은 '6·25 전쟁 영웅' '호국의 별' '국군 최초 대장'이라는 추앙을 받으며 2020년 7월10일100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지켰다면 6·25 전쟁 때는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백선엽 장군은 지리산에 숨어든 빨치산(공산 게릴라)을 토벌하는 책임자로 있었다. 국군의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으로 살던 마을이 완전히 불타 오갈 곳이 없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백장군이 세운 보육원(백선고아원)에서 자라게 해주었다.

미국이 최강국이 된 데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을 영웅으로 예우하고 있는 애국정신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2021년6월15일에 타계한 미군 중위 윌리엄 편체스는 6·25 전쟁의 마지막 미군포로로 휴전협정 2개월 후인 1953년 9월 6일 '마지막 포로'로 귀환했다. 1038일 만에 자유의 품에 안겼다. 미국 정부는 편체스에게 퍼플 하트 훈장을 수여했고, 2018년 민간인 최고 등급의 팔메토 훈장까지 수여했다. "조국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결코 잊지 않겠다"는 미국 국방부의 표어만 보아도 미군들의 전투에 임할 때 그들의 사기와 애국정신을 더한층 고양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6·25 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은 스스로 자신이 죽으면 '대전 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대전 현충원'에 2020년 7월15일 대한민국의 존립을 가능케 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으로 영면해 계신다. 2021년7월9일 백선엽장군의 1주기 추모식이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정부가 아닌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전 주한미군사령관) 공동 주최로 초라하게 거행되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버웰 벨(Burwell Baxter Bell) 장군은 추모식 메시지에서 "저는 항상 백선엽 대장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에 비유해왔다"며 "워싱턴 장군은 미국이 자유를 찾는 데 기여한 존경 받는 고위 군사 지도자였고, 백장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낸 것과 같다"고 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그를 전쟁 영웅 그 이상으로 존경한다"며 "백선엽 장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였다"고 애도를 표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한민국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Mike Pence, 2017.01~2021.01)은 2022년3월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뿐이라고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다. 그의 선친인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소위로 참전했으며 포크쉴림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1953년7월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앞두고 경기도 연천 천덕산 고지에서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3개월 동안 펼쳐진 싸움이 포크쉴림 전투다.

세계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전몰·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앞장서서 군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국 국방부의 표어가 되새겨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지 바란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Freedom and Peace is not Free).//

다시 거저로 오면 된다. 차창 밖의 풍경과 하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떠오르는 단어도 카톡에 저장한다. 간혹 숲길을 걷기도 한다. 파란 하늘빛 산 수국이 곳곳에 피어 자태를 자랑하며 유혹하듯 살랑거린다.

6월 초부터 장마 권에 든다는 것을 나무들이 더 빨리 아는 것 같다. 간간히 비추는 햇살을 만끽하며 숲길을 걷는다. 이렇게 걷다보면 잠시라도 자신에 침습한 탐욕의 기운을 내려놓고 참선을 하는 가벼운 마음이 된다. 수행하는 마음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불현듯 기자생활을 할 때 간혹 들려서 밥을 먹던 사찰이 생각난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얼마쯤 가다보면 낮은 산(山)도 있고, 가든 식당도 있고, 숲도 우거진 곳에 있는 작은 사찰이다. 사찰을 올라가는데 길옆으로 사열을 하듯 한 야생화의 보들보들한 꽃잎에 윤기가 돌고, 낮 달맞이꽃이 핀 마당가는 아주 근사하게 맑고 밝다. 해를 따라 핀다는 해바라기도 제법 커져 여물고 있다. 머잖아 원반 같은 그 노란 꽃이 피어 태양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다. 계절에 따라 각각의 꽃들이 피는 것을 보게 되지만, 각각의 꽃들이 지는 것 또한 보게 된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는 꽃이 피는 것을 보려고 하지, 지는 꽃은 별로 관심에도 없다. 마치 오는 이들을 마중 가는 일은 누구나 반기면서도, 정이 든 사람을 떠나보내는 배웅은 매번 꺼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낙화와 배웅을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꽃처럼 절반은 각각의 낙화를 보게 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이날도 구십노구의 주지 스님을 뵈었다. 종교는 다르지만 소통이 되는 분이셨다. "절간에 와서 목사님이 큰 주발 달라고 하면서 갖가지 나물 넣어 탐스럽게 비벼 잡수시는 것을 보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필자에게 초월한 분이시라며 좋아하신다. 다른 스님을 시켜도 되련만, 굳이 노구를 끌고 노스님이 직접 텃밭에 가서서 탄 상추와 오이를 씻어와 텃밭에 밥상을 차리셨다. 하얀 쌀밥을 큰 주발에 쏟아 붓고 갖가지 나물을 넣고 비벼먹으며 모처럼 행복을 만끽했다. 밥상을 치우고 차(茶)를 마시며 올라올 때 보니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나를 반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목사님. 벚꽃과 감꽃이 지는 때가 다른 건 아시죠?" 성도 중에 한분이 슬픈 일을 당해 크게 상심을 할 때 이 말을 들려주셨다고 하신다. 고통의 일과 이별의 일과 죽음의 일을 꽃이 지는 때에 빗대어 하신 말씀 같았다.

벚꽃은 이른 봄 잠시 피었다가 지고, 감꽃은 좀 더 늦게 피었다 지는데, 서로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 저마다 때를 각각 맞아 피고 지는 일에 큰 낙담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스님의 말씀은 누군가와 만나 정이 들었을 때, 그 누군가와 이별을 겪으면서 마음 아파하던 필자에게도 마음의 처방전처럼 와 닿는다.

오면 어느 때 인가는 떠나게 되고, 한 사람이 가면 새로운 사람이 또다시 온다. 이른 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만나는 사람도 있다. 이른 때에 만난 사람은 먼저 떠나게 될 것이고, 뒤늦게 온 사람은 그 떠나감이 보다 지난 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남과 이별, 모두 다 제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문득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질문을 듣고 '뭐지, 무슨 걱정이 있

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걱정을 잊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무름도 순간일 뿐이다. 머지않아 누구에게든 '뭔지 모를 걱정'이 다시 피어날지도 모른다. 걱정은 마음이 미래로 가 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유사한 현상으로 '기대'도 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는 아직 불어오지 않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연상시킨다. 이래저래 속세에서 사는 우리는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심성은 인류의 오랜 기억 세포 속에서 발견된다. 식량부족, 독충, 포식동물, 기생충, 질병, 강력한 기후 변동, 코로나19 등은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하는 자연의 적대적인 힘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걸핏하면 '근심·걱정'을 하게 된다. 왜 그럴까? 우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를 대상으로 할 때는 모든 손실을 수용하지만, 자신은 10만원 이익이고 상대가 50만원 이익인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같은 조건에서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참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결국 이런 '나'가 있는 한 '너는 나의 위생'일 뿐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념에 갇혀 지내기가 십상이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일정한 시공간 속에서 선(線)이 아니라 점(點)으로 산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선'은 앞의 내용을 한 치 오차 없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면 '점'은 앞의 내용과 다른 시공간을 점유하면서 독립적으로 놓여있는 흔적을 말한다. 필자의 경우 수행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40년 넘게 '동거'한 내자(內子)가 "당신은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팔자 좋은 사람이오"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걱정을 씻어내는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다.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밥의 냄새와 국 맛과 젓가락 소리와 반찬을 짚는 젓가락의 감촉을 느끼면 된다. 매 순간 새로운 현재의 질감과 소리와 맛을 만끽하면서 사는 힘은 걱정을 내리려고 노력하는데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하는 일에 집중하거나, 즐기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된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필자의 경우, 더 큰일이 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이루지 못할 것은 아예 포기하고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른다. 매 맛을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스님은 구수한 된장찌개 맛이다. 신부나 목사는 치즈, 버터 맛이다. 그러다보니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느끼는 스님과는 소통이 잘된다.

개안(開眼)의 경지를 이룬 구순의 노스님은 "나는 깨달은 사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늘 겸손해하신다. 그런 노스님은 내게 "능문능시(能文能詩)"라고 한다. "능히 글을 짓고 시를 쓴다."는 뜻이다. 시인이어서 그럴까. 또 '진정한 목사'라고도 말한다. 이는 과찬의 말씀이다. 부끄럽다. 또 말씀하신다. "강남 아파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몇 평이나 되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 다 '그림의 떡'이다. 대신 저 창밖의 자연을 바라보라 자연에는 임자가 없다. 달도 해도 마찬가지로. 내 달이라 하면 내 달이고 내 해라 하면 내해다. 강위에 부는 바람 역시 내가 아무리 취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다. 나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 순간을 산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선택권이 있다. 백세가 다 된 노스님은 "나는 항상 운동 삼아 움직이며 걷는다. 그 자체가

“해와 달, 그리고 바람과 구름. 주인 있나”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로다

안호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칼럼니스트)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라고 한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빠른 새가 있다 그 새는 바로 '어느 새'란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게 훨씬 더 짧겠지만, 심리적 체감속도는 '어느 새'를 능가할 만한 새는 없을 것 같다. "어?"하는 순간에 세상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될 때의 그 당혹감이란, 그만큼 순간적이면서도 강렬하다.

가정의 달인 5월도 지나갔고, 호국보은의 달인 6월도 지나갔다. 시끌시끌했던 6.1 지방선거도 끝났다.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하나로 망종(芒種)과 소서(小暑)의

사이에 있으며 일년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하지(夏至)도 지났다. 그래서 일까. 날씨가 제법 후더지근하고 무더워졌다. 암벽을 타는 산악인들의 말로는 이때가 되면 벌써 바위가 뜨거워 암벽을 오르기가 무척 힘이 든다고 말한다.

장마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마가 지나가면 더위가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가 이처럼 빛나니 숲도 들도 질푸르게 무성하다. 계곡 신비한 천체 같은 느낌이 든다.

달맞이꽃이 해가 지는 밤에 달을 따라 핀다면, 낮에 피는 진달래, 개나리, 들국화는 낮에 피는 야생화다. 필자는 간혹 목적지도 없이 열차를 타거나 전철을 탄다. 특히 순환전철은 순간 졸더라도 마음이 편하다. 내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아무 곳이나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려 승차를 찾아 쉬다가

난 행복이다. 흔히 사람들이 살다가 지나간 걸 발자취라 하는데, 나는 발자취를 남기려고 걷는 게 아니다. 그냥 걷는 것이다. 걷는 자체가 보람차고 즐겁다.” 숙연해진 마음에서 ‘혁’소리가 절로 난다. 다시 찾잔에 향기 그윽한 차를 따르면서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毒)이 된다. 마음 닦은 수행자가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노래를 하면 그게 무엇이겠는가. 그게 다 수행이고, 선(禪)이 아니겠는가.” 동안거와 하안거를 빠짐없이 채워도 꼬박 19년이 걸렸으며 출가 후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평생 물음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에 답을 찾았다고 한다. “아심여명경 조진불염진(我心如明鏡 照塵不染塵)내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비치긴 비치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 “내 마음이 거울 같더라. 뭐든지 다 비친다. 배가 있으면 배가 비치고, 손이 있으면 손이 비친다. 그런데 비칠 뿐이지 나는 물들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굶히지도 않는다. 다만 비칠 뿐이다.”

하산을 하면서 올라갈 때 미처보지 못한 들꽃들을 보았다. 문득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가수 나훈아가 부른 ‘잡초’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들녘에 핀 꽃들이 저렇게 아름답지만 한데, 누가 잡초

라 부르는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잡초는 없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이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가 아닌가. 환경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지도 모른다.

사람도 이와 똑같다. 자신이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인정받겠지만, 뻔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면 잡초가 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잡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슬픈 현실이다.

또한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 뽑혀서 버려지는 삶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중생(衆生)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자 명품이다.

누군가에 의해 자칫 산삼이라도 잡초가 되어 버릴 수도 있고, 이름 없는 들꽃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 꽃들은 피고, 지고, 물 가듯 흐르는 자연의 일에서 배운다. 사람들은 성인의 가르침에서 지혜를 얻고, 나침판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성인의 삶과 가르침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지혜와 사랑(자비)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을 권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삶이 이뤄진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에서 치아를 중앙에서부터 세었을 때 좌우로 여덟 번째에 위치한다. 사람의 93%는 사랑니가 있으며 사람의 약 7%는 사랑니가 아예 없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함과 초조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체내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분비가 될수록 세균의 활동을 억제시켜 청결유지를 도와주는 입속 침 분비를 감소시킨다. 침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세균 번식 활동이 활발해져 구강 내 세균이 많아진다. 단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몸의 신경 호르몬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잇몸 질환과 치주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영국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Elizabeth 1세’는 1558년 1월 15일, 25세에 여왕에 올랐다. 집권 45년간 결혼할 기회가 있었으나 썩은 치아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 원인은 불면증과 썩은 치아로 인한 지독한 입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적(政敵)들을 런던 탑(塔)에 감금하고 화(火)가 치밀 때 마다 직접 체찍으로 고문(拷問)하는 기행(奇行)을 일삼았다. 그녀가 45세 때인 1578년 X-mas 무렵에는 극심한 치통(齒痛)과 잇몸 질환을 참을 수가 없어 뜯은 눈으로 지새는 날이 허다했다. 어느 날, 여왕의 조언자인 런던의 주교(主教)가 자칭해서 자신의 치아를 뽑으며 고통이 심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지켜 본 여왕도 주교를 따라 썩은 치아를 뽑아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극심한 치통과 치과 질환으로 온갖 고생을 했다. “길고 야윈 여왕의 얼굴을 보면 꽤 나이가 들어 보였다. 치아는 몹시 누르고 치열은 고르지 않아서 그녀가 빠르게 말할 때에는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 ‘앙드레 위롤’의 기록이 전한다. 그녀는 대영제국을 45년간 통치한 여걸(女傑)이었지만 치아 결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 현대 치의학으로 치아관리를 잘 받았더라면 런던탑에 갇힌 수많은 정적들을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살해하는 만행(蠻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란 우리 속담이 있다. 천하의 맹수, 호랑이도 이빨이 빠지면 먹잇감을 잡을 수도 없고 먹이를 먹지 못해 생존할 수가 없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이빨 빠진 사람도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복의 으뜸은 치아(齒牙)이지 싶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구강위생을 회교(Muslim)정신으로 삼은 이야기도 적는다. 이슬람은 육체와 정신의 청결을 동시에 강조한다. 코란(Koran)에는 기도하기 전에 하루에 5번씩 목욕(沐浴)하라고 율법으로 정했다. 목욕할 때 마다 이빨을 꼭 닦아야 한다는 구강세척(口腔洗滌)을 의무화했다. ‘살바도라 페르시카(Salvadora Persica)’라는 나무 가지인 ‘시와(Siwak)’으로 이빨을 잘 닦으라고 권장했다. ‘시와(Siwak)’는 나무 젓가락만한 길이에 직경은 1/2인치 정도다.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한쪽 끝을 24시간 동안 담가 놓아야 한다. 그러면 나무껍질이 벗겨지고 끝이 뭉툭한 섬유질이 나온다. 이게 바로 천연의 자연 칫솔인 ‘시와(Siwak)’이다.

구강위생관리에 철저한 마호멧은 임종하기 직전에도 시와(Siwak)로 양치질을 했다. 그는 이쑤시개(Toothpick)로 치간(齒間)의 음식물을 제거하고 손가락으로 잇몸을 문질러 마사지를 하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이

슬람인 장례절차에 따르면 시신(屍身)의 치아를 시와(Siwak)로 정성껏 닦아주며 영혼을 위한 구강위생을 꼭 챙긴다.

마호멧의 구강위생은 지금도 철저히 지켜진다. 19세기 신학자인 ‘아브딘’은 <시와(Siwak) 사용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첫째, 치아가 노랗게 변할 때이며 둘째는 입맛이 변할 때이다. 셋째는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넷째는 기도(祈禱)하기 직전에 다섯 번째는 이슬람 종교의식에서 수건을 닦은 손으로 물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洗滌)하는 행위인 ‘세정식(Ablution)’ 직전이다. 이는 기름진 양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아랍인의 식습관으로 볼 때 매우 효과적인 구강관리(口腔管理) 방법이다. 마호멧은 구강세척과 치아관리를 종교의식으로 승화시킨 선지자(先知者)입에 틀림이 없다.

치아 건강에 좋은 3가지 음식이다. 1.산성 식품 보다 알칼리성 음식이 좋다. 2.섬유질 식품이 좋다. 3.녹차나 감잎차(茶)는 충치를 예방한다.

이와 반대로 치아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6가지 음식이다.

첫째, 초콜릿이다. 설탕이 섞인 음식은 당분이 많고 먹은 후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초콜릿에는 치아 변색을 일으키는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둘째, 레몬이다. 레몬은 사실 산도가 높아 직접적으로 치아에 접촉하면 치아 부식의 원인이 된다.

셋째, 얼음(氷)이다. 딱딱한 얼음을 씹으면 턱관절은 물론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치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넷째, 인절미다. 인절미 떡은 찌꺼기가 치아에 달라붙어서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다섯째, 술(酒)이다. 술에는 당분(糖分)이 함유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충치(蟲齒)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毒酒)는 잇몸을 자극해서 치아가 약해질 수 있다.

여섯째, 탄산음료(炭酸飲料)다. 탄산음료를 마시고 양치질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탄산으로 인해 치아의 경도가 약해진다. 이때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 마모가 심해질 수가 있으니 삼가해야 한다.

지 문표 의학박사가 들려주는 치아에 관한 이야기도 붙인다. “사람마다 지문(指紋)이 다르듯이 치아(齒牙)의 배열(配列)도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국내 최초의 법의학자 중 한 분인 ‘문국진 의학박사’가 사체(死體)에서 깨물린 이빨자국으로 살인범을 잡아내는 획기적인 과학수사로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칭찬을 받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해병대 군의관으로 일할 때 해병 수색대 대원들의 신체검사를 할 때가 생각합니다. 수색대원들의 임무가 너무나 위험해서 전투작전 중 전사(戰死)할 경우 전사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장병 신체검사 시에 치아배열을 세밀하게 확인함은 물론 몸의 흉터 등도 자세하게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회사(서울 중구 퇴계로 27길 28)와 출입문이 나란히 있는 ‘세연치과 권병구 원장(치의학 박사)’께 위 내용에 관해서 자문을 받았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는 어느 제약회사 광고의 카피처럼 행복은 건강한 치아에서 나온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뿌리다>라는 이 글 제목은 권 병구 원장과 함께 정했다.//

치아(齒牙)는 오복(五福)의 뿌리다

전대길 (병 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인생에서 바람직한 오복(五福)이다. 첫 번째, 수(壽)로서 천수(天壽)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長壽)다. 두 번째, 부(富)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부(富)다. 세 번째, 강령(康寧)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복이다. 네 번째, 유효덕(攸好德)이다.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이다. 다섯 번째, 고종명(考終命)이다.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생을 마치는 복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오복(五福)을 염원하기 위해 새 집을 짓고 상량(上梁)을 할 때 대들보에 연월일시(年月日時)를 쓰고 그 밑에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 비 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이라고 썼다. “하늘의 세 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추라”는 기원문이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五福)은 아래처럼 치아가 좋은 게 으뜸이다.

1.치아가 좋은 것 2.자손이 많은 것 3.부부가 해로하는 것 4.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5.명당에 묻히는 것이다. 이처럼 이[齒]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는 오복에 들었다’고 한다. 인체(人體)에는 뇌, 심장, 신장, 간 등 중요한 장기(臟器)가 많은데 하필이면 보잘 것 없는 치아가 오복(五福)의 하나인지 이해가 된다.

해마다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살의 ‘6’을 따서 6월로 정했다. 어금니를 일컫는 ‘구치(臼齒)’의 ‘절구 구(臼)’자의 발음 ‘구(9)’를 따서 9일(日)로 정한 것이다.

‘이 치(齒)+어금니 아(牙)’자로 이루어진

‘치아(齒牙)’란 글자를 살펴본다. ‘치(齒)’자는 ‘그칠 지(止)+ 입 구(口)’자로 되어 있으며 ‘입 구(口)’자 내부에 상하를 나누어 사람인(人)자가 4개가 있다.

이는 입 안에 상하로 나란히 서 있는 치아의 모양을 나타낸다. ‘(齒)’자는 ‘입안에 상하로 나 있는 치아가 빠지면 사람은 죽는다’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이다. ‘어금니 아(牙)’자는 어금니 모양을 닮았다.

그럼 성인(成人)의 치아 개수는 몇 개나 될까? 정답은 28개다. 여기에 잇몸 아래위에 사랑니가 4개까지 자란다면 모두 32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식 섭취와 일상 생활에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아 숫자에서 사랑니를 뺀다. 따라서 사람의 치아 숫자를 보통 28개라고 말한다.

‘사랑니’란 치아는 큰 어금니 중 세 번째 위치인 제3대 구치를 말한다. 구강 내에 제일 늦게 나오는 치아다. 보통 사춘기 이후 17~25세 무렵에 나기 시작하며 이 시기는 이성(異性)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이다.

특히, 새로 어금니가 날 때 마치 첫사랑을 잃듯이 아프다고 해서 “사랑니”라고 부른다. 또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에 나온다고 하여 ‘지치(智齒)’라고도 한다.

위 아래턱 좌우에 한 개씩 사랑니는 총 4개가 된다. 입안에 가지고 있거나 나오는 개수는 1개부터 4개까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랑니는 정상적으로 나와서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되면서 사용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치열의 맨 안쪽 끝에서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치아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입안에서 간니의 맹출(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것)이 끝난 정상적인 치아 배열